

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 합의...오늘 처리

핵심쟁점 '직권조사권·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뚜렷한 결과 못내 야당 의원들, 김진표 국회의장에 '개의' 압박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항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

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을 받아들였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 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영수회담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채상병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민의힘 이양수(왼쪽)·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첫 영수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을 놓고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양측이 평행선만 달린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김 의장이 직권으로 2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채상병 특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정부 이승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5월 초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결 투표 절차도 없이 1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한시라도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이(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함께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

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소병철, '가족돌봄청년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가족돌봄에 필요

한 수당 및 서비스 지원 ▲5년마다 지원 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도 특징이다. /김진수기자

조국 "우리는 민주당 위성정당 아냐"

당직자에 당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받지 않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달 30일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당직자 대상 조희 인사업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진보와 개혁 과제를 위해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 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 원내 교섭단체 기준 하향 조정이나 조국혁신당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별검사법' 발의에 민주당이 협력할지를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조국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희에는 황윤하 원내대표와 황현선 사무총장, 차규근 대표비서실

장, 조용우 정무실장, 김보형·배수진·강미정 대변인 등 최근 인선된 당직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이들에게 "이전 당직이 어디였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당의 비전, 가치, 행동양식을 체득해 달라"며 "창당도 선거도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국민만 믿고 진행했음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 대표는 "앞으로도 기존의 정치공학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직자 중 좋은 정치인이 배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찬대 "22대 국회서 김건희 특검 바로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1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기존 도이

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더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